# 광주 청년들 직접 청년정책 만든다

**대학생 등 20~30대 47명**
**제5기 市청년위원회 출범**
**청년문제 발굴·제안 등 활동**

광주시 청년위원회가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직접 의제를 설정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정책 창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시는 17일 "'제5기 광주시 청년위원회'가 지난 13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5기 청년위원회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창업자, 청년활동가 등 광주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 4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지역 청년들의 눈과 귀가 돼 청년문제를 발굴해 정책을 제안하고 세계청년축제에서 광주 청년정책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며 국내 청년단체 간 교류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은 그 동안의 청년위원회 운영 및 활동성과 소개에 이어 위촉장 수여, 연간 운영계획을 안내하고 분과장 및 간사를 선출하는 등 분과별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5기 청년위원회는 4월초 전체 워크숍을 개최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임원진을 구성하고, 1년간의 활동계획을 논의하는 첫 번째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청년 아카데미 운영, 우수 활동 청년위원에 대한 시장 표창 등을 통해 청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 청년위원회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층의 의견수렴, 청년문제 발굴·조사·연구를 통한 청년정책 제안, 수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청년위원회는 청년 교통수당, 대학생 빛가람 학점제, 청년 취업 정장 대여사업, 청년 문화해설사 양성, 사각지대 청년 건강검진 지원 등 18건의 제안을 시정에 반영시켜 현재 시행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신학기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 광주시는 초등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14일 오전 북구 양산동 용두초등학교 앞에서 정종제 행정부시장, 장휘국 시교육감, 김규현 광주지방경찰청장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횡단보도 이용지도 등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 3486명 광주 대표 음식 추천

**공개 오디션 거쳐 최종 선정**

광주시가 최근 실시한 '광주음식 공모전'에 광주시민을 비롯한 국민 3486명이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을 추천했다. 스토리 분야에서도 378편이 접수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광주음식 공모전'에서 추천된 음식을 중심으로 광주대표음식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마련해 5월 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G-FOOD' 공개 오디션을 거쳐 시민중심의 광주대표음식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담은 대표음식 선정을 위해 13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광주대표음식 선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광주대표음식 선정위원회'는 소통·기획·홍보, 문화관광, 음식문화 등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회의에서는 김기태 호남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광주대표음식 선정 기준, G-FOOD 오디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유치원·학교·직장 등 95곳 5654명 신청

광주시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에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시가 2월 21일부터 교육 신청을 접수한 결과 1주일만에 유치원, 초등학교, 병원, 주간보호센터, 직장 등 95곳에서 5654명이 교육을 신청했다.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은 시민들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연중 상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3월 4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장애인, 어르신(경로당), 직장인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생활에 대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폭염, 미세먼지, 풍수해, 지진 등 기후변화로 대형화되고 빈번해지는 각종 자연재난 대응 요령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놀이시설 사고, 학교 내 안전사고, 교통사고, 노인낙상사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하임리히 요법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시 안전정책관실로 전화(613-4931)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1월 올해 교육을 맡은 안전교육 전문강사 58명을 확정하고 2월 21일 전문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환절기 장염바이러스 기승

**시보건환경연구원 주의 당부**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17일 "환절기를 맞아 노로, 로타바이러스 등과 같은 장염바이러스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보건환경구원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급성설사질환 감염증 실험실 감시사업'을 통해 10여개의 협력병원에 설사, 구토 등 장염증세로 입·내원한 환자의 가검물로부터 매주 원인바이러스를 분석하고 있다.

3월 들어 실시한 실험실 감시사업 결과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은 1월 이후에도 꾸준히 검출되고 있으며 로타바이러스 검출률은 2월부터 증가 추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공공건축물 디자인 정책 명칭 공모 1107건 접수

**8건 선정 시민 선호도 조사**

광주시가 디자인이 뛰어난 공공건축물을 곳곳에 신축해 도시 경관 향상을 이끄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 명칭을 공모하는데 무려 1107명이 참가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시는 1107건 가운데 1차 심사에서 8건을 선정해 오는 19일까지 시민 선호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난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디자인이 뛰어나거나 특징 있는 공공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신축하기 위한 사업 명칭을 공모했다.

1107건 가운데 1차 심사를 통해 '광주 아트어반(Gwangju art-urban)', '광주리움(GWAGNJURIUM)', 'FINE CITY 광주', '광주 아름도시', '광주 르네상스(Gwangju Renaissance)', '광주 굿 시티(Gwangju Good City)', '광주 아트피아(Artpia)', '광주 디자인시티(Design City)' 8건을 우수작으로 선정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선호도 조사는 시 홈페이지, 모바일광주 앱을 비롯해 시청과 구청 시민홀, 광주송정역에서 스티커 부착방식으로 진행한다.

최종 결과는 21일 시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으로, 최우수상 1명에게 300만원, 우수상 2명에게 각 50만원, 장려상 5명에게 각 2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광주상생카드'를 지급한다. 김남균 도시계획과장은 "광주만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부르기 쉬운정책 명칭으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정책 만족도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화재 취약 건축물 보조금 신청 하세요

**성능보강사업 2600만원 지원**

광주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 보강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2월 26일 공고한 '2019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에 따라 각 구청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건물 1동에 2600여만원(국비·시비)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축물이다.

4월 30일까지 자치구 건축과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본 사업은 2020년부터 3년간 추진하며 해마다 25곳씩 총 75곳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과 관련한 대상 시설의 종류, 지원 요건 등 세부사항은 시 건축주택과(613-4813) 또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북구, 실무 중심 '정책자문단' 본격 운영

광주 북구는 17일 "지난 14일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북구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원활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정책자문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산·학·연·관 분야별 총 21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자치행정, 복지환경, 경제문화, 안전도시 4개 분과로 구성했다.

북구는 이날 회의에서 정책자문단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민자치회활성화·산업단지활성화·일자리 창출·고독사 예방·저출산 극복·미세먼지 저감·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도시정비구역 지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자문단은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새해 구정 운영방향과 다음연도 신규 정책 발굴에 따른 정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분과별 상시 회의를 운영해 각 부서의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요청 시 문제점 진단, 해결방안 및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김치타운 초보자 위한 김치교실 2개 강좌 운영

광주김치타운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내손으로 담그는 우리 집 김치', '초보자를 위한 김치교실' 등 2개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3월부터 7월까지 제11기 김치소믈리에 과정을 운영하는데 이어 김치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 전문가의 솜씨를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강좌에는 광주세계김치축제 수상자, 식품명인 등 김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습 위주로 진행한다. 강좌에서는 기본적인 양념 만들기부터 대표 김치인 배추김치 등 10여 종의 김치 담그는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임야, 투자적합**
■ 22600평중 **지분 2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매매 – 5000만원**
문의. 010-6834-7400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급매8억(대출3억5천만원 포함)**
문의. 010-3605-5000